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출범 1주년 기념식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출범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섭 청장을 비롯해 이준원 농축산식품부 차관보, 정병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이돈구 AFoCO자문위원장 등 산림관계자가 참석했다. AFoCO의 지난 1년간의 추진 상황과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경험을 전파하는 10년 장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AFoCO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출범하는 산림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로,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아시아 각국의 산림협력과 투자, 훼손산지 복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환경부 북한산 참나무시들음병 공동 방제 펼쳐



신원섭 산림청장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국립공원 빨래골 인근에서 열린 참나무시들음병 공동 방제 행사에 참석해 참나무시들음병에 감염되어 고사된 나무에 약제를 붓고 훈증작업을 벌였다.

아시아 REDD+ 연구파트너십 구축 국제 심포지엄



선진국이 개도국의 조림사업을 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REDD+(개발도상국 산림보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성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산림청과 국립 산림과학원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조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시아 REDD+ 연구 협력관계 구축과 민간기업 참여방안 모색을 주제로 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원섭 산림청장, 춘천시 산사태 현장방문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 25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사태 현장(춘천 IC 인근)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건설한 복구를 통해 피해 재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정과제인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에 힘써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9일 광화문광장에서 제2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원섭 산림청장,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무궁화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꽃자왈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미래가치 심포지엄



신원섭 산림청장은 2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김우남 국회의원, 꽃자왈공유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꽃자왈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신 청장은 "꽃자왈이 휴양과 치유, 생태문화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